

합창과 一体感意識

- 지금 우리에게는 보다 감동적인
합창이 있어야 한다 -



朴昌根
(社)環境教育會 委員長

1. 습합의 힘과 감동

<카사블랑카>라는 영화가 있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1942년) 독일군 점령하의 「카사블랑카」를 무대로 독일군에 저항하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활약을 그린 로맨스 영화다.

사람들은 보통, 이 영화의 극적인 감동을 자유지역(삶의 길)으로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에 애인(잉그리드 버그만)만을 떠나 보내는 애절한 라스트 신을 이야기 하지만, 나는 그 보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독일 軍歌와 프랑스 國歌의 습합 대결(?) 신을 잊지 못한다.

즉,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독일 군인들이 그들의 勝戰을 軍歌의 습합으로 흥겨워 하자, 이를 역겹게 여긴 한 호스테스가 감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프랑스 國歌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 돌연한 사태에 독일 군인들은 잠시 당황하나, 곧 더 큰 목소리로 그들의 軍歌를 부른다. 한 가냘픈 여인의 독창을 합창의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이 었다.

이 사태를 보고 있던 나이트클럽의 주인(험프리 보가트)은 피아니스트에게 프랑스 國歌를 연주하도록 지시하고, 호스테스와 함께 國歌를 부른다. 그러자 이곳, 저곳에서 프랑스인 손님들도 하나, 둘, 이에 가세하여 國歌를 합창한다.

독일 군인들은 이에 지지 않으려고, 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발까지 구르며 더 한층 큰 소리로 軍歌를 부른다. 소리로 소리를 제압하려는 합창의 대결 ... 프랑스여 단결하라! 누가 부탁하거나 지시한 것도 아닌데, 술병을 나르던 웨이터도, 주방에서 일하던 요리사들도, 문 앞에서 손님을 안내하던 종업원도 나중에 독일군에게 입을 화는 생각하지 않고, 모두 흥에 몰려와 國歌에 참여한다. 그리하여 프랑스 國歌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독일 군인의 軍歌를 삼키고 거리로, 거리로 파도쳐 나갔다.

영화의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 탱크부대의 영웅적 전투상을 그린 전쟁 영화속의 감동적인 합창도 잊지 못하고 있다.

敗戰을 눈 앞에 둔 독일은 롬멜장군이 이끌고 있는 탱크부대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동안 거듭된 전투에서 유능한 탱크兵을 잃은 롬멜은 최후의 대 결전을 앞두고 本國에 탱크兵의 보충을 요구하고, 새 보충兵이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을 사열한 롬멜은 경악한다. 이제 겨우 18세 밖에 안되는 애송이 新兵뿐이었기 때문이다.

“탱크兵을 보내달라고 했지, 누가 소년단을 보내달라고 했느냐?”고 화를 내며 롬멜이 막사를 나가려는 순간, 기가 죽은 채 도열해 있던 新兵중에서 누군가 군화발로 막사 바닥을 세차게

굴러 박자를 맞추면서 軍歌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도열해 있던 新兵들도 따라서 모두 함께
발로 박자를 구르면서 軍歌를 습창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독일의 소년 용사!”

독일의 승리만이 우리의 영광!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다!”

막사를 나가려던 롬멜은 이 돌연한 합창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
국을 지키겠다는 新兵들의 신념이 그 합창속에
이글거리고 있음을 찾아내고, 롬멜도 함께 軍歌
를 합창하며, 新兵들의 어깨를 세차게 겨안는다.

영화 <Sound of Music>에서도 합창의 감동
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과 하모니
를 이루는 합창은 인간의 心性을 더 없이 맑고
깨끗하게 한다.

합창때문에 惡意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어
보이는 폰드라스 남작의 가족들... 때문에 좀 모
자라고, 셈이 많은 남작의 약혼녀(결국 이루어
지지 않는다)마저 아름답게 보이는 감동을 준다.

영화 <Sound of Music>을 보면, 누구나 쉽
게 그 속의 분위기에 휩싸이고, 테마 음악을 흥
얼거릴 수 있게 한다. 쉽게 동화되는 음악이 합
창인 것이다.

2. 습창은 一體感を 조성한다

장황하게 합창의 힘과 감동을 찾아 보았다.
합창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가? 를 애써 3편
의 영화로 제시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동기와 조건은 一體感의 조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團結을 호소하는 10여편의 論文보다는
감동적인 습창 한곡이 더는 共同體意識을 이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一體感

共同體 意識

共有物에 대한 認識

이 세가지만 이를 수 있다면, 現在의 모든 不
條理, 不確實, 不誠實등 우리가 고뇌하는 모든
人類의 당면 惡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環境汚染의 경우만 해도, 汚染의 根本的 要因

은 認識 때문에 發生한다.

※ 一體感만 있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汚
染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나 自身만을 생각
하는 利己心 때문에 汚染이 加速化되는 현재.
一體感의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 共同體意識만 있다면, 汚染을 일으키지 않
을 것이다.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意識은 自身
만 잘되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
게 될 것이다. 따라서 共同體意識이 조성되는 사
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共有物에 대한 認識만 높아진다면, 汚染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의 것은 즉 내것이며, 내
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認識은 내것만을 추구하는
데서 생기는 汚染의 發生을 根本的으로 막을 것
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一體感和 共同體意識 그
리고 共有物에 대한 認識을 조성할 수 있는가?

짧은 識見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점에 깊은 관
심을 갖고 追求해 온 그 동안의 결론으로는 모
든 사람들의 思考를 合一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
직 感情的 心性에 호소하는 것으로 他意가 아닌
自發的 충동에 의한 선택에 있다고 본다.

人類가 갖고 있는 유일한 共通單語 하나는 미
소라고 한다. 그리고 世界人의 言語는 音樂으로,
音樂이야 말로 人類의 心性에 깊은 同質感을 느
끼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베토벤의 <합창 교향
곡>이 미국에서나 소련에서, 파리의 상젤리제에
서나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또한 로마 교황청에
서나 버마의 불교 寺院에서 똑 같이 애청되는 것
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크리스 마
스> 캐롤이 종교적인 인식과 상관없이 소련이나
중공에서도 즐겨 연주된다거나, 송년때면 거의라
고 할 世界 모든 곳에서 <윈드 랩 사인>이 연주
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감동적인 습창이야 말로 人間을
一體感和 共同體意識 그리고 共有物에 대한 認
識을 갖게 하는 조성제라고 믿는다. 습창이 있는
곳에 一體感和 共同體意識이 따르고 世界가 하
나라는 共存認識이 따른다.

습창이야 말로 위대한 힘인 것이다.

3. 왜, 우리에게는 습합이 없는가?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感動的인 습합이 없다. 아니 감동적인 것까지는 못 되더라도 보편적으로 불리울 습합도 없다.

얼마 前, L.A. 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메달을 따자 거국적인 축제 분위기가 연일 계속되었는데, 응당 그에 따른 흥(춤과 노래)은 다분히 One man show적인 것이었다. 특히 어제, 오늘 여의도 광장에서 펼쳐진 L.A. 올림픽 勝戰(?) 환영대회의 경우, T.V.에서 본 흥은 서글프기까지 했다.

獨唱曲을 여럿이 불렀다고 해서 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여럿이 부르는 노래를 습합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L.A.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때마다, 갑작스러운(?) 愛國心이 습합을 불러 왔는데, 특히 <아-대한민국>이라는 유행가가 마치 국민의 습합인양, 요란스럽게 전파를 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아-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유치하고 값싼 독창곡이지 습합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國家意識을 그렇게 값싸게 흘려 버리는 melody를 국민의 습합인양 오도하는 지각 없는 행위에 대하여 분노마저 느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나라>라는 노래도 있었다. 이것도 피상적인 愛國論을 강요하는 유행가도 祖國愛를 그렇게 값싸게 흥미분위로 소구할 수는 없다.

특히, 88 서울 올림픽을 고무 할 목적으로 作詞, 作曲했을 <상모 쓴 호랑이>라던가 하는 노래는 카바레에서나 부름직한 유행가로, 정말 이런 너절한 것들이 우리의 습합으로 오도될까 보아 겁난다.

왜?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습합이 없는가?

個人的으로는 우수하나, 둘 이상 모이면, 지리멸렬한다는 그 民族性 때문인가?

그래서 一體感이 없고, 共同體意識이 없고 그래서 共有物에 대한 認識이 없어, 環境이 더 加速度的으로 擴大되어 汚染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世界的인 독주자는 많다. 한동일,

정명화, 백건우 그리고 김영옥 등등... 그러나 합주의 경우는 시시한 Trio 하나도 없다. 모두들 유명한 Pianist 나 Violinist 가 되려고 하지, 오케스트라의 멤버인 팀발리스트를 지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서글픈 현실이다.

4. 감동적인 우리의 습합을 만들자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습합이 있어야 한다. 他意的으로 불러야 하는 노래가 아니라 自發的으로 부를 습합, 부르지 않고는 못 배길 그런 습합이 있어야 한다. 그 습합은 거국적인 式典에서도 어울리고, 성공한 친구의 축하연에서도 어울리며, 포장마차 소주 잔 위에서도 어울리는, 쉽고 밝으며, 진취적 기상과 조국애를 감동적으로 엮는 그런 民族의 讚歌여야 한다.

그런 습합이 있으면, 우리는 애써 愛國論을 거창하게 호소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團結을 의치고, 질서를 부르짖지 않아도 될 것이다. 습합 하나로 모두가 질서를 찾고, 團結하게 되며, 愛國者가 될 것이다. 어떻게 人間的인 그 감동을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나는 環境保수를 위해, 그 무엇에 앞서, 감동적인 습합을 만들 것을 제의한다. 우리 모두가 一體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습합이 있으면, 그리고 자연과 우리가 共生共存의 共同體임을 깨닫게 하는 습합이 있으면, 아니 地球上의 모든 環境이 우리 모두의 共有物이기 때문에 保全해야 할 당위성을 깨닫게 하는 습합이 있으면, 우리의 環境은 쾌적해 질 것이며, 人類의 未來는 밝아 질 것이다.

나의 祖國에서 우리의 地球로,

나의 民族에서 地球上의 형제로,

나의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깨닫는 人類愛的 습합이 있어야 한다. 비록, 언어나, 피부색, 이데올로기와 종교 따위가 달라도 그 습합만은 부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一體感과 共同體意識을 불러 일으키는 世界人的 습합을 우리 環境人的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